

이종구: 광장_봄이 오다

LEE Jong-gu: Agora_Spring Is Here



학교 가자, 2반 - 세월

2017

한지에 아크릴릭

65x91cm

전시개요

전 시 명 : 이종구 개인전 《광장_봄이 오다》

전시기간 : 2018년 9월 28일(금) - 10월 21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33점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80928-20181021_이종구, 광장_봄이 오다

1. 전시개요

학교재는 2018년 9월 28일(금)부터 10월 21일(일)까지 이종구(b. 1954, 충청남도 서산) 개인전 《광장_봄이 오다 Agora_Spring Is Here》를 연다. 학교재에서 2009년도에 연 개인전 《세 개의 풍경》 이후 9년 만에 개최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종구의 최근작 33점을 선보인다. 이종구 화백은 농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서사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끈질기게 천착하며 뛰어난게 형상화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과장과 추상 대신 자신이 지켜내야 할 그림의 대상이 지닌 근원적 표정을 화면에 이끌어 낸다. 오지리로 상징되는 땅의 사람들과 함께 긴 시간을 견뎌낸 이종구 화백의 미학은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의 슬픔, 윤리를 저버린 정권을 질타하는 광장의 촛불 집회, 그 과정을 거쳐서 정권이 바뀌고 남북 화해가 조성되어 한반도에 희망의 봄이 오는 최근 우리의 역사적 사건을 대하소설보다 장엄하게 완성해 냈다. 시공간을 넘나들며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작가가 지켜야 할 미학의 정신을 화면에 오롯이 구현해 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전시는 학교재 본관에서 열린다.

2. 작품소개

대표작품



학교 가자, 2 반 - 세월

2017

한지에 아크릴릭

65x91cm



학교 가자, 8 반 - 세월

2017

한지에 아크릴릭

65x91cm

〈학교 가자, 1 반~10 반 - 세월〉(2017) 연작은 세월호 사건 피해자인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원고는 그 당시에 남자 반과 여자 반이 각각 5 반씩이었고, 총 학생 수가 350 여 명이였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 그중 75 명만이 생존했다.

세월호 사건에는 슬픈 일화가 많다. 그 중 하나가 2 학년 2 반 정차웅 학생 이야기다. 사건 당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정차웅 학생은 구명조끼를 발견한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발견한 구명조끼를 벌어서 같은 반 친구에게 입혀서 먼저 내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친구들을 좀 더 돕고 나가겠다고 했던 정차웅 학생은 결국 배에서 나오지 못했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 친구들을 구하려 했던 그는 생존 학생들 사이에서 의인(義人)이 되었다. 추모관에 가면 그가 사용하던 책상 위에 그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쌓여있다. 작가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추모관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이번 연작에 나오는 많은 학생들의 사진을 보았다. 작가는 그들에게 빛진 마음으로 해남에 있는 임하도(林下島·이마도, 세월호 지나가던 뱃길)에 가서 3 개월간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며 10 점의 작품 〈학교 가자, 1 반~10 반 - 세월〉 연작을 그렸다.



광장 - 가족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x244cm

〈광장 - 가족〉(2017)은 작가의 가족들(작가, 작가의 부인, 작가의 동생, 작가 동생의 부인, 작가 동생의 아들, 첫째 아들, 첫째 아들 며느리, 둘째 아들, 손자, 강아지가 등장)이 빨간 피켓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앉아있는 작업이다. 우측 상단에 박근혜 퇴진 이 적혀있는데, 뒷날 이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이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추가로 삽입된 이미지다. 광화문의 촛불이 개인, 가족, 단체, 광장의 시민들로 이어져 거대한 촛불시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2016 년 겨울부터 2017 년 4 월까지 총 23 회의 시위가 진행되었다.



광장 - 16,894,280 개의 촛불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오브제

114x570cm

〈광장 - 16,894,280 개의 촛불〉(2018)은 좌측 상단의 박근혜 초상으로 시작해서 우측 하단의 박근혜 사진으로 마무리된다. 광화문 촛불시위의 힘, 즉 단결된 시민의 힘으로 탄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5 점의 연결된 작품으로 보여준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그 당시에 광화문의 역사적 흐름을 촛불이 물결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렸고, 또한 시위에 쓰였던 스티커를 수습하여 콜라주 형식으로 붙였으며, 피켓에 자주 등장했던 문구들을 중간중간 배치하여 시간의 흐름과 당시의 상황을 표현했다.



봄이 왔다 1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194x130cm

〈봄이 왔다 1~3〉(2018) 연작은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2018 년 4.27 정상회담의 중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봄이 왔다 1〉, 〈봄이 왔다 2〉, 〈봄이 왔다 3〉등 3 점인데,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두 정상이 만난 모습 중 가장 강렬한 세 장면을 그린 작업이다. 〈봄이 왔다 1〉을 보면 두 정상이 만난 날이 철쭉이 흐트러지게 피던 4 월이었다. 작가는 남북 관계도 봄기운에 피어나는 철쭉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하단 30%만을 철쭉꽃으로 채웠는데, 완벽한 평화가 온 뒤에 화면 전체를 철쭉으로 채우는 그림도 그리려고 생각 중이다.



봄이 왔다 2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182x227cm

〈봄이 왔다 2〉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뒷배경은 백두산 천지를 하단부는 제주도 유채꽃밭을 그렸다. 양 정상의 악수와 미소를 그림으로써 진정한 봄이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다. 자연의 풍경과 인물의 표정으로 통일의 열망을 작품에 녹였으며 봄이 왔다 연작 중 가장 큰 작품이다. 마치 이번 9 월 20 일 두 정상이 백두산 등반을 하고 천지를 산책할 것을



봄이 왔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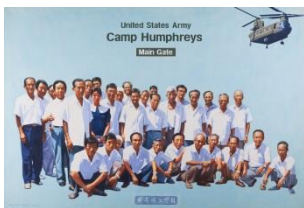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x194 cm

예견한 듯하다.

〈봄이 왔다 3〉은 〈봄이 왔다 2〉와 연결되는 작품으로 남북 군사분계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넘어서는 장면이다. 한반도 반백 년 역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장면이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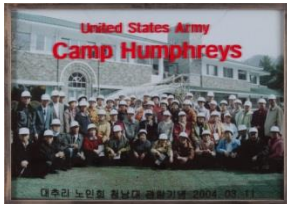
대추리의 기억 - 캠프헴프리스

2018

한지에 아크릴릭

130x194cm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대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인 캠프 헴프리스(Camp Humphreys)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대추리에 살던 사람들이 주거지 이전을 국가로부터 강제 당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미군 기지 확대 반대 시위 당시 작가도 대추리에 가서 싸웠고, 그때 이 연작들이 기획됐다. 〈대추리의 기억 - 캠프헴프리스〉(2018)는 그 당시 흩어진 마을 노인들이 캠프 헴프리스 정문에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상상을 담은 그림이다.



대추리 사람들 - 캠프헴프리스 2

2018

사진 액자

44x62cm

〈대추리 사람들 - 캠프헴프리스 2〉(2018)는 대추리 노인회의 모습, 〈대추리 사람들 - 캠프헴프리스 1〉(2018)는 대추리에 있던 초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사진이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한 마을의 평화가 희생당한 모순의 상황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대추리 사람들 - 캠프헴프리스 1

2018

사진 액자

44x62cm

작가가 그동안 고향 오지리를 통해 발언했던 우리 시대 피해해져 가고 있는 국토 현실 풍경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3. 작가소개

이종구는 1954년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에서 태어났다. 1976년 중앙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8년 인하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986년 그림마당 민에서 진행한 <땅의 사람들>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 문제를 고발하는 작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농촌 화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태호 명지대학교 교수는 1992년 <땅의 사람들>전에서 '우리 시대 농민의 일생과 농촌의 사회 변화를 감동적으로 엮은 대하소설을 읽을 때와 같은 울림을 준다.'는 글로 작가를 표현했고,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2005년 진행된 올해의 작가 선정 당시 인사말에서 '이종구는 농민들이 어떻게 거덜 나고 희망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그려온 거의 유일한 화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이종구는 단순히 농민화가가 아니라 동시대 진실을 그리고자 했던 유럽의 진실주의(verism) 혹은 사회적 리얼리즘의 연장선에 위치한다고 하겠으며, 적어도 그런 화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미술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이종구의 작품세계를 지지했다.

그동안 우리 농민의 삶, 농촌의 문제를 그려온 작가는 이번 전시 《광장_봄이 오다》전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광화문 촛불시위, 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의 군사분계선에서의 만남과 판문점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등 국가의 큰 사건을 통해서 시민 이종구와 작가 이종구가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자 한다.

이종구는 국립현대미술관(과천),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서울), 성곡미술관(서울), 제주 4.3 항쟁 평화기념관(제주), 제주도립미술관(제주), 경기도미술관(안산), 삼성미술관 리움(서울) 등 국내 여러 기관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선보였다. 인도네시아 국립 미술관(자카르타), 싱가포르 미술관(싱가포르),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후쿠오카, 일본) 등 해외 주요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 서울시립미술관(서울), 제주도립미술관(제주), 성곡미술관(서울), OCI 미술관(서울), 인천문화재단(인천), 청와대(서울), 청남대(청남) 등 여러 국공립 미술관 및 개인 미술관, 국가 기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4. 작가의 말

<광장_봄이 오다>전을 열며

이종구

근래 몇 해 동안 우리는 일상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사건들 속에서 살아왔다. 세월호 사건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임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한 충격과 분노의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은 금세기 최고의 역사적인 감동의 이벤트였다. 2016년 겨울에서 2017년 봄까지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다. 촛불혁명을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파면시켰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도 되었다.

나의 이번 전시회 <광장_봄이 오다>는 이러한 근래의 시간과 공간에서 시작된 예술적 기록이자 증언이며 상상의 결과물들이다. 나는 '별이 된 세월호의 아이들'을 깊은 바다 속에서 인양하는 마음으로 <학교가자.....>를 작업했고, 광화문 촛불현장에서 수집한 포스터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아이들을 세상에 부활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광장>연작은 말할 것도 없이 그 해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싸운 거룩한 시민들의 초상화이자 기록화라 하겠다. 나 자신이 십 여 차례 광화문 광장에 나가 촛불을 밝힌바 있으므로 <광장>은 개인으로부터 가족, 단체, 그리고 7개월 동안 23회에 걸친 촛불광장에 참여한 총 16,894,280명 시민들의 총체적인 촛불혁명 과정과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봄이 왔다>연작은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과 판문점 선언을 보고 나서 바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워낙 갑작스럽고도 감동적인 역사적 사건이어서 채 가지지 않은 격정의 감정으로 시작된 작업의 내용과 결과들은 완성도에 앞서 다소 추상적인 감상이나 민족적 감상주의를 드러낸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이번 전시회는 세월호와, '세월호 아이들'이 만든 광화문 광장의 촛불과,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에 의한 판문점선언은 시작과 끝이 연결된 역사의 필연, 또는 역사의 순리에 대한 나의 예술적 기록과 증언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작업들은 동시대의 작가로서 나의 현실인식과 역사인식, 특히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는 우리민족의 현실 앞에서 어떤 미학적 완결성보다 시대의 서사와 내용을 더 중요시하고 강조 한 측면이 크다. 그것은 내가 80년대 초 그림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우리시대의 현실과 역사를 기록하고 증언하는 일로서 나의 예술적 책임과 임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의 확인과 실천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작업의 결과는 순전히 역량의 빈곤과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도 거듭 우리시대의 역사와 현실과 현장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작가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 나의 궁극적인 예술적 지향은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세상에 있으므로.

5. 전시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종구, 광장_봄이 오다]

그의 손끝에서 별이 된 사람들

- 가슴 아프고 거룩한 섬광의 기억

방현석(소설가, 중앙대 교수)

판단이나 선택을 하기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이종구 화백은 그런 분이다. 그의 말을 따르면 지금은 곤란해도 나중에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지난해 여름, 조연을 듣고 싶어 그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마다 해남의 임하도에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시원한 섬에서 그림을 그리며 여름을 보내고 있을 그를 부러워하며 나도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다.

“선배님은 좋겠습니다.”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투정 섞인 말을 했던 나는 지난달 부평에 있는 그의 작업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작업실 벽 두 개를 꽉 채운 그림은 단원고등학교 열 개 반 아이들의 단체사진이었다. 작업의 규모에 대한 놀라움은 곧 전율로 바뀌었다. 열 폭의 그 그림에 담긴 아이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눈빛에 영혼이 깃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비슷한 눈빛도 하나 없었다. 눈빛만이 아니었다. 입술들은 다 서로 다른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손끝은 서로 다른 꿈을 가리키고 있었다. 열일곱 해 그들을 키워 올린 발목의 아래로 보이는 운동화는 아이들이 가지 못한 길을 향하고 있었다. 사진은 단체였지만 그림의 주인공들은 모두 서로 다른 영혼을 지닌 고유한 개인들이었다. 그것은 작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고 교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림들이었다.

“이 많은 작업을 언제 다 하셨어요?”

“임하도에 가서 작업했어. 세월호 뱃길이 보이는 그 섬에서.”

“힘들었겠어요.”

끝내 인양하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이야기를 <세월>이란 소설로 쓰면서 여러 번 운 적이 있는 나는 그가 이 많은 아이와 선생님을 그리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울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애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 밤이면 잠을 자기가 무섭기도 했어.”

그는 차마 인천의 작업실에서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아이들이 떠나간 뱃길이 바라보이는 진도 앞바다 작은 섬의 폐교에서 작업을 했다. 3 개월을 임하도에서 밤이면 떨려서 잠 못 이루고 낮이면 울면서 그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빠져 나오지 못한 정차웅 군도 있었다. 아무것도 움켜쥐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듯 두 손바닥을 활짝 펼쳐 들고 학급 사진을 찍은 1학년 1반 단체사진을 그리며 그는 몇 번이나 어금니를 깨물어야 했을까.

급훈이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었던 2학년 5반 아이들은 서른여섯 명 중에서 아홉 명이 살고 스물일곱 명이 희생되었다. 아이들과 최후를 함께한, 급훈을 낭중지추로 정했던 담임 이해봉 선생을 단체사진 속에 그려 넣으면서 작가는 몇 번이나 주머니를 뚫고 나오려는 송곳을 스스로 다스렸을까. 과장과 추상 대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깊어지는 것이었고, 그는 자신이 지켜내야 할 그림의 대상이 지닌 근원적 표정에서 끝내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랬기에 단원고의 아이와 선생님들의 표정은 깊고도 밝다.

그가 사진으로 남아도 될 사람들을 회화로 그린 것은 기록과는 다른 층위에서 기억을 다루는 일이 예술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의 그림은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를, 권력이 어떤 사람을 버렸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예술적 인양작업의 과정이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인양된 사람들의 깊고도 밝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주목한 것은 그들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광장으로 불러내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게 만든 구원자로서의 면모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봄의 근원은 바로 그들로부터 온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화폭에 소환하면서 그가 알게 된 사실과 느꼈던 감정을 부평의 작업실과 신포동의 막걸리 집에서 주고받으면서 나는 아주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그림이 이미지가 아닌 서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단원고 아이들을 위한 ‘기억의 교실’에 있는 쪽지와 편지들 봤지? 부모들과 친구들이 쓴 편지들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이에게 보낸 편지였어. ‘네가 우리를 잘 좀 돌봐줘.’라고 한 대목이야. 그림을 그리는 내내 그 이야기가 가슴에서 떠나질 않았어.”

무력한 희생자들인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들이 그저 제 앞만 바라보는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윤리를 상실한 권력을 바꾸고 있다는 것. 그는 감추어진 인간의 진실을 섬광처럼 포착하여 우리에게 주변이 어떻게 중심을 구원해냈는지를 눈앞에 보여준다. 그의 작품이 지닌 서정적 강렬함은 대하소설보다 장엄한 서사를 밑그림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의 서사적 상상력에 대해 나는 이미 오래 전에 두 손을 든 적이 있다. 전쟁 중이던 2003 년 이라크에 가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챙겨가지고 온 물건이 바로 버려진 교과서와 공책이었다. 요르단 암만에서 시리아의 아라비아사막을 거쳐 꼬박 28 시간을 지프차로 달려 도착한 바그다드에서 휴먼지를 뒤집어쓴 채 그가 챙겨온 그 물건을 보고 손을 들지 않을 작가는 없었다. 아이가 쓴 정성스런 아랍어로 빼곡한 공책이 어찌다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을까를 생각하며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물건의 주인에게 공책을 돌려줄 수 있는 날을 그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부평 작업실의 다른 한 벽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은 광화문 광장의 사람들이었다. 단원고 열 개 반 아이들의 단체 그림에 이어 나는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황토와 갈색, 그리고 진도항의 질푸른 색으로 이동해온 이종구 화백의 작품세계에서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은, 빨강의 강렬함이 잠시 숨을 멎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회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때로는 스텐실과 콜라주 기법, 오브제 등을 세련되게 활용해온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토록 과감하게 빨강색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 그는 칼라의 변화를 가벼운 농담으로 돌렸다.

“물감 값 좀 썼어. 이거 예전에는 비싸서 못썼던 거야.”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만 써온 나는 물감 값이 칼라에 따라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빨간색이 어두운 색에 비해 몇 배나 값이 비싸다니.

피켓과 포스터, 방송 자막으로 깔아놓은 구호를 보고 나와 같이 작업실에 들렀던 후배는 그가 화가로서 미학적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그러나 그는 아주 태연했다.

“감수하려고.”

그가 미학적 우회로를 스스로 봉쇄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미학이 정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만 예술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피카소의 작품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이번 그림들은 예전보다 더 치열한 미학적 도전이라고 보아 마땅했다.

이종구 화백이 일관되게 그려온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었다. 얼핏 광장으로 진출한 그의 그림에 담긴 인물들이 지금까지 그가 그려온 인물들과 다른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광장의 사람들 중에서 굳건하게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촛불의 시작에서 끝까지, 개인으로부터 가족, 집단으로서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은 헛것을 쫓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가 변함없이 그려온, 땅에 발 디딘 채 견디고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의 형제이고 자식이며 그 자신이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그의 그림을 보며 ‘이불변 응만변(以不變 應萬變)’이란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안의 불변으로 만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라’는 이 말은 베트남 사람들의 영원한 아저씨, 호치민에 의해 역동적으로 갱신되었다. 그의 고향 ‘오지리’로 상징되는 땅의 사람들과 함께 긴 시간을 견뎌낸 이종구 화백의 미학은 바다의 슬픔을 품고 하늘로 날아올라 ‘지금 여기’의 광장에 착지하였다. 그가 1980년대 그림 속 주인공들을 위해 전시회를 열었던 오지초등학교는 분교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아예 폐교가 되었다. 그가 그렸던 오지리의 장 씨와 이 씨, 문 씨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빈자리가 아니라 남은 한 사람, 문 씨의 시선이 가 닿은 지점이다. 이번 전시에 등장하는 유일한 오지리 사람, 문 씨의 시선이 광장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오지리의 사람들과 광장의 사람들이 바통 터치를 하는 이 절묘한 타이밍은 평생을 오지리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행운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농촌 오지리에 당도한 캘리포니아 쌀 포대와 주인을 잃고 바그다드 뒷골목에 버려진 어린아이의 공책이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어떤 서사로 연결되는지를 아는 작가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자기 안의 불변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 새롭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이종구 화백의 <광장> 연작을 보며 나는 2016년 겨울 밤 광화문에서 만났던 그를 떠올렸다. 그는 아직 건강을 염려해야 하는 갭마른 몸에 여윈 얼굴이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광장을 떠나지 않았다. 구두를 신은 이종구와 운동화를 신은 이종구, 두 이종구를 그린 작품은 시민으로서의 이종구와 예술가로서의 이종구가 다를 수 없음을 밝히고 있었다. 45개의 작품을 붙인 약 천 호 크기의 대작인 <16,894,280개의 촛불> 중에서 그는 한 개의 촛불로 빛나는 시민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미학관이 서 있는 자리를 뚜렷이 했다.

부평의 작업실에서 나를 세 번째로 놀라게 만든 것은 광장이 만들어낸 싱그러운 봄이었다. <봄이 왔다> 연작은 독립 70주년이 넘도록 휴전상태에서 ‘분단체제’를 이어온 남과 북이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감격을 담고 있다. 더 이상 남의 탓을 하며 외세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두지 않기를 바라는 민족의 열망이 바닥에 깔린 제주도의 유채꽃과 머리 위의 백두산 천지에 새겨져 있다. 특히 마지막 그림 속 우리 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금까지 그가 그린 작품에서 송아지가 아닌 큰 소의 코에는 늘 코뚜레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봄의 푸른 초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두 마리 소는 코뚜레를 벗어 던졌다. 코뚜레를 했던 흔적조차 없었다. 두 소가 내달릴 수 있는 푸른 초원을 깔아준 것은 광장의 촛불이지만 입체적 디테일은 코뚜레가 꿰인 소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며 마침내 코뚜레를 벗겨낼 날을 기다려온 그의 지치지 않는 상상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종구 화백을 땅과 농민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탁월하게 그려내 온 화가로 인식한다. 나는 그 인식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애정을 나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며 여러 번 확인했었다. 학생들이 농촌활동을 하는 곳에 찾아가면 언제나 그가 한 걸음 앞서 다녀간 다음이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 해마다 막걸리와 삼겹살을 사 들고 농민들과 함께 하려는 제자들을 찾아 다니는 교수를 나는 그 이외에 본 적이 없다. 어떤 기억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농민들의 주름진 인생을 그가 말아 그려온 것 또한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 인식의 절반만 맞는 이유는 그가 기울인 다른 관심과 그가 그린 다른 그림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작가로서의 선택과 도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랍의 뒷골목에 버려진 교과서와 공책을 보면서 물건 주인의 운명을 떠올리는 지구적 상상력을 지닌 예술가이며 자본주의의 지구적 팽창 과정과 결과를 캘리포니아 쌀 포대에 담아 그려낸 세계 유일의 화가다. 그가 농촌과 농민을 그렸던 것은 그가 농촌화가여서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 형식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드문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좋은 소설은 이미지를 이야기로 만들고, 좋은 그림은 이야기를 이미지로 만든다. 이종구 화백은 놓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서사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꿰뚫어보고 끈질기게 천착하며 뛰어나게 형상화해 왔다. 별이 되어야 마땅할 서사의 주인공들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에 그는 게으른 적이 없었다. 그가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만 오백여 명에 달한다. 그전에 그렸던 사람들을 다 합친 숫자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가 그린 별들이 어찌 오백여 개뿐이겠는가. 우리 시대를 구원하는 별이 된 단원고의 아이들과 선생님, 지구적 평화를 만들고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낸 16,894,280 개 광장의 별들까지 그 숫자는 셀 수없이 많다. 그 별들을 위해서라면 미학적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고 그는 말했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해야 마땅한 아름다운 사람이 놓였던 자리를 분명하게 새겨두기 위해 거리 두기 라는 미학적 우회로를 봉쇄해버린 그의 선택으로 발생할 손해가 있다면 그건 예술의 손해이지 이종구의 손해일 수 없다. 그의 과감한 미학적 투지로 인해 그 어떤 예술보다 감동적이었던 현실이 비로소 예술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방현석 1 주요작품으로 <새벽 출정>, <내일을 여는 집>, <랩스터를 먹는 시간>,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세월> 등이 있으며 신동엽창작기금, 오영수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수상. 현재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부총장을 맡고 있다.

6. 작가약력

이종구

- 1954 충청남도 서산 출생
 1976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8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졸업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교수 재직

개인전

- 2018** **광장_봄이 오다, 학교재, 서울**
 2016 한국 현대미술의 눈과 정신 II: 리얼리즘의 복권,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2015 절집기행, 미항사, 해남
 2010 우현예술상 수상기념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9 국토: 세 개의 풍경, 학교재, 서울; 신세계 갤러리, 광주
 2006 두 개의 방 대추리_바그다드, 평화박물관, 서울
 2005 올해의 작가 - 이종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4 땅의 정신, 땅의 얼굴, 한길 북하우스, 파주
 2003 국토, 학교재, 서울
 이라크 이슬람 기행 - 주인을 찾습니다, 신세계 갤러리, 인천
 1999 귀향 - 오지리 사람들 2, 서산시 문화회관, 서산
 1997 초대전, 해반갤러리, 인천
 1996 가나미술상 수상기념전, 가나아트, 서울
 1992 땅의 사람들, 학교재, 서울; 예지화랑, 대구
 1991 오지리 사람들, 오지초등학교, 서산
 1989 초대전, 온다라미술관, 전주
 1986 땅의 사람들, 그림마당 민, 서울; 맥향화랑, 대구
 1976 이종구 습작전, 인천공보관, 인천

주요 단체전

- 2018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도미술관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4·3 70주년 동아시아 평화인권: 침묵에서 외침으로, 제주 4·3 평화기념관, 제주
 가나아트 컬렉션: 시대유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7 코리아 투모로우 2017: 해석된 풍경, 성곡미술관, 서울
 키워드 한국미술 2017: 광장예술 - 햇불에서 촛불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물때_해녀의 시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6 얼굴, 맞서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서울
 사회 속 미술 - 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15 광복 70년 위대한 흐름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광복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 문화역서울 284, 서울
- 2014 레트로_’86~’88: 한국 다원주의 미술의 기원,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VII - 리얼리즘, 김해문화의전당 율술미술관, 김해
 코리안 뷰티: 두 개의 자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사람들_한국과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국립현대미술관, 아스타나
 민주인권평화전: 오월의 파랑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13 발리 제주 - 두 섬의 결의,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자카르타
 6월 민주항쟁 기념 민중미술 특별전 - 잠수함 속의 토끼, 민주공원, 부산
- 2012 한국현대미술_거대서사 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근현대미술 특별기획전 - 여기 사람이 있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 - 이상과 허상에 꽃피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상차림의 미학,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DMZ 평화 그림책 프로젝트: 겨울 겨울 겨울, 봄, 경기도미술관, 안산
 제 2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_물 위의 경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1 올해의 작가 23인의 이야기 1995-20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서울미술대전: 극사실회화 - 눈을 속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공존 그리고 상생,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제 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오늘의 아시아 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2010 아시아 리얼리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싱가포르국립박물관, 싱가포르
 노란 선을 넘어서, 경향갤러리, 서울
 한국 드로잉 30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 2009 미술과 놀이 아트인 슈퍼스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원더풀 픽쳐스, 일민미술관, 서울
 현대미술로 해석된 리얼리즘,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08 쌈지농부, 갤러리쌈지, 서울
 서울미술대전 - 한국현대대구상회화의 흐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백두대간 대미 지리산,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아시아 그리고 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 2007 경기, 1번 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민중의 힘과 꿈: 청관제 민중미술컬렉션, 가나아트, 서울
 신화를 삼킨 섬 - 제주풍광,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신체에 관한 사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민중의 고통: 한국미술의 리얼리즘 1945-2005,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2006 한국미술 100년 2부: 전통, 인간, 예술, 현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여성·일·미술 - 한국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그리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코리아 통일 미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여섯 개 방의 진실, 사비나미술관, 서울
- 2005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제 1 회 포천아시아미술제, 포천반월아트홀, 포천
 시대의 초상, 일상의 울림, 박수근미술관, 양구
- 2004 바그다드 551km, 제비울미술관, 과천
 평화선언 2004 세계 100 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엄퇴·모약,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실존(實存)과 허상(虛像),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03 환경미술 - 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2 쌀 - 아시아의 정신 아시아의 주식, UCLA 파울러뮤지엄, 로스앤젤레스, 미국
 식물성의 사유, 갤러리 라메르, 서울
 우리의 얼굴들, 제비울미술관, 과천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2001 80년대 리얼리즘과 그 시대, 가나아트, 서울
 한국현대미술, 시대의 표현 - '상처와 치유',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0 거래와 함께한 쌀 - 도작 문화(稻作 文化) 3000년,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 1999 돈돈돈, 사비나갤러리, 서울
 중앙미술대전 역대수상작가전, 호암갤러리, 서울
 코리아+JAALA - 동북아와 제3세계 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호암갤러리, 서울; 로댕갤러리, 서울
- 1998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새로운 천년 앞에서 - 5.18 18주기 기념,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1997 광주통일미술제, 광주 5.18 묘역, 광주
 우리시대의 초상 - 아버지,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미술 97 - 인간·동물·기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6 리얼리티 96, 한전프라자 갤러리, 서울
 한국 모더니즘의 전개 1970~1990: 근대의 초극, 금호미술관, 서울
- 1995 해방 50년 역사미술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95 광주통일미술제 - 역사는 산을 넘어 강물로 흐르고, 광주 망월동 5.18 묘역 일대, 광주
 한국현대미술, 중국미술관, 베이징
 제 1 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5월 정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실크로드 미술기행 설치 3, 동아갤러리, 서울
- 1994 민중미술 15년: 1980~19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1993 코리아 통일미술, 센트럴미술관 아넥스, 도쿄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의 한국미술, 퀸즈미술관, 뉴욕; 금호갤러리, 서울
 땅의 현실 - 김정헌, 이종구, 서인화랑, 서산
 마음으로 보는 감동, 눈으로 읽는 감동, 동아갤러리, 서울
- 1992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 금호갤러리, 서울
 JALLA - 세계와 우리, 도쿄도미술관, 도쿄
 한국현대미술의 한국성 모색 - 근현대한국화의 한국적 흐름, 한원갤러리, 서울
 우리 시대의 표정 - 92 인간과 자연, 그림마당 민, 서울
- 1991 통일, 그림마당 민, 서울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 금호갤러리, 서울

- 한국현대미술의 한국성 모색 - 3부 갈등과 대결의 시기, 한원갤러리, 서울
- 1990 온다라 개관 3주년기념 농촌의 현실, 농민의 모습, 온다라미술관, 전주
 조국의 산하 Ⅱ - 민통선 부근, 그림마당 민, 서울
 광주여, 오월이여, 그림마당 민, 서울
- 1989 4인의 우리땅 동행 - 새해맞이 광산문화대잔치 (한겨레신문 태백지국 주최), 석탄회관, 태백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신동엽의 '금강'에 부친 미술작품, 예술마당 금강, 서울
 80년대의 형상미술, 금호갤러리, 서울
- 1988 제 6회 JALLA, 도쿄도미술관, 도쿄
 민중미술: 한국의 새로운 문화운동, 아티스트 스페이스, 뉴욕
- 1987 오늘의 인천미술 그 형상, 인천문화회관, 인천
 제 6회 임술년, "구만팔천구백구십이"에서, 태백화랑, 대구; 해인화랑, 부산
 우리시대의 작가 22인, 그림마당 민, 서울
- 1986 1986년 문제작가, 서울미술관, 서울
 우리시대의 30대 기수, 그림마당 민, 서울
 제 5회 임술년, "구만팔천구백구십이"에서, 그림마당 민, 서울
- 1985 제 1회 지평 (~1995), 제 1공보관, 인천
 한국미술 85년, 아랍문화회관, 서울
 제 4회 임술년, "구만팔천구백구십이"에서, 한강미술관, 서울
- 1984 해방 40년 역사, 광주아카데미미술관, 광주; 전남대학교 교정, 광주; 가톨릭센터, 부산; 진화랑, 마산;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서울;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 서울
 삶의 미술, 아랍문화회관, 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제 3회 임술년, "구만팔천구백구십이"에서, 광주아카데미미술관, 광주
- 1983 제 2회 임술년, "구만팔천구백구십이"에서, 아랍문화회관, 서울; 수화랑, 대구
 제 6회 중앙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2 제 1회 임술년, "구만팔천구백구십이"에서, 덕수미술관, 서울
 인천미술 30년, 인천공보관, 인천
 제 4회 중앙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0 제 1회 조형 (~198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제 1회 현대미술상황 '80 - 인천 (~1985), 남빈화랑, 인천

수상

- 2010 우현상, 인천문화재단, 인천
- 2005 올해의 작가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4 가나미술상, 가나아트, 서울
- 1983 제 6회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중앙일보사, 서울
- 1982 제 5회 중앙미술대전 특선, 중앙일보사, 서울

출판

- 『이종구 1980-2013』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도서출판 학고재, 2013)
- 『땅의 정신 땅의 얼굴』 (한길아트, 2004)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성곡미술관, 서울

OCI 미술관, 서울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과천

인천문화재단, 인천

삼지아트컬렉션, 파주

아리랑문학관, 김제

청와대, 서울

청남대, 청주

한국은행, 서울

KEB 하나은행, 서울